

학생들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시청

“역사적 현장 생생히 느끼길”... 김승환 교육감 전북도내 초·중·고교에 권고

27일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도내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27일 관문점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시청을 권고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가파른 대립의 위기 속에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과 대북특별사절단 방북을 거치

며 한반도에 본격적인 협상과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실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부근의 관문점에서 남북정상이 회담을 한다

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으로 방남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과거 두 번의 정상회담과는 다른 형태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남북정상회담 생중계를 시청하고 남북분단의 현실과 통일문제,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 등에 대한 배움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비핵화 문제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학생들이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을 직접 시청하며 많은 것을 느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민 기자

만 12세 여학생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전주시가 여학생들을 위한 무료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프로그램인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만 12세 여학생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올해도 지속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시 자궁경부암(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된다.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는 고위험 유형인 HPV(16, 18형)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보건소는 올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통해 만 12세 여학생에게 의사와의 1:1 건강상담 서비스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최소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지원대상자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초 6학년·중 1학년 여학생이다.

대상자는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 및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건강 상담과 함께 1차 접종을 받고, 6개월 후에 다시 상담과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참여의료기관 위치와 의료기관별 백신종류(47백신 가다실, 2가백신 서바릭스)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또는 전주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jo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 포함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안내·권장하고 있다. 만약 접종을 받지 않으면 접종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나고, 1회당 약 15~18만원에 이르는 접종비용 또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동취재반



4·27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한반도기가 25일 전북도교육청에 걸렸다. 한반도기 게양은 김승환 교육감과 황민주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한병길 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위원, 임정우 전북대 상과대 학생회장 등 4명이 함께 진행했다.

남북정상회담 기원 한반도기 도교육청 게양

김승환 교육감, 6.15공동선언실천본부 등 도내 통일관련단체 제안 받아들여 성사

역사적인 4·27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반도기가 25일 전라북도교육청에 걸렸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20분 본관 전면 국기게양대에서 전복겨례하나,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와 공동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반도기 게양식을 가졌다.

한반도기 게양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과 황민주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한병길 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위원(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 임정우 전북대 상과대 학생회장 등 4명이 함께 진행했다.

황민주 의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지금 70년만의 새 역사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4·27남북정상회담이 가져올 한반도 평화의 흐름은 이제 누구도 정치적 야욕만으로 방향을 틀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의 비전을 보여 주고, 아이들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을 만나 서

로 어우러지는 순간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반도기 게양식은 전복겨례하나,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등 도내 대표적인 통일관련단체들의 제안을 김승환 교육감이 받아들여 이뤄졌으며, 한반도기도 이들 단체가 306cm×204cm 규격으로 제작해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날 게양된 한반도기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도교육청 앞에 태극기, 전복교육청기와 함께 펼쳐지게 된다.

/이상민 기자

4월 26일 목요일 해돋이 05:45 | 해질 19:14 | 달돋이 15:20 | 달질 03:43

날씨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많아짐

도시	날씨	기온
군산	구름	8~19
익산	구름	7~21
완주	구름	7~21
무주	구름	5~21
진안	구름	6~20
정읍	구름	8~20
진주	구름	8~22
임실	구름	6~21
정읍	구름	9~21
고창	구름	8~20
순창	구름	8~22
남원	구름	8~22
장수	구름	5~21

김승환 교육감, 30일 '3선 도전' 선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사진)이 오는 30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는 30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밝힌다.

김 교육감은 출마 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전북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직 교육감이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전북도교육감 선거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서거석, 유광찬, 이미영, 이재경, 천호성, 황호진 등이다. /이상민 기자

전주대-LG CNS, MDD 인재양성 MOU

전주대(총장 이호인)는 25일 LG CNS와 자동코딩기술인 MDD의 확산 및 발전, 해당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LG CNS 마곡지구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LG CNS 금융/공공사업부 이재성 전무와 공공사업담당 정운열 상무, 전주대학교 양병선 부총장과 황인수 교육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1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전주대와 LG CNS의 양해각서는 MDD 개발 환경(DevOn MDA 및 개발 Framework)을 제공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가이드와 기술의 지원 및 협력, 학부 과목에서 MDD 기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LG CNS에 제공

결과물에 대한 홍보·확산, MDD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다.

LG CNS와 대학교간의 MDD 업무협약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중앙대 다빈치SW교육원에 이어 세 번째다.

MDD(Model Driven Development)는 코딩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자동 개발하는 최신 SW 개발방식이다. LG CNS MDD 수준은 코딩 소스가 100% 자동으로 생성되는 레벨3 단계다. 국내에서 MDD 레벨 3을 개발하며 실제 적용한 기업은 LG CNS가 유일하다.

전주대학교는 MDD 기술을 문화융합대학 스마트미디어학과 교육 과정에 도입하여 5월부터 운영할 고 그 결과물을 LG CNS에 제공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